

# PL.A.NET

사진 전문창작공간인 '상상문화발전소1839'에 입주한 작가는 <The white shaded backyard> 연작에 이어 <PL.A.NET>연작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가는 본래 자연이었던 장소에 인간의 개입에 주목한다. 이전 연작인 <The white shaded backyard>는 버려진 공간이 다시 자연으로 변화, 생성되는 것을 자연의 웅장함과 함께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번 <PL.A.NET>연작은 다소 다른 표현 어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우선 작품은 아름다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행성처럼 보인다. 등근 원의 사진은 우주 공간을 촬영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그 색 또한 영롱하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행성이 아닌 무엇임을 발견하게 된다.

매우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던 '심미'로서 작품은 이내 강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 토양 위에 남아있는 기름자국, 산화된 깃벌, 폐수 등으로 불쾌와 불편함으로 '추미'로 변모한다. 작품은 추미로 변모하듯 인간의 행위와 가치판단 역시 쾌와 불쾌, 선과 위선을 오고 가며 그것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계몽과 근대화, 개발에 대한 인간 이성의 판단이, 그리고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판단이 거대한 자연 앞에 얼마나 보잘 것 없고 가변적인 것인지 작가는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음을 뒤엉켜 놓으면서 보여주고 있다.

큐레이터 최창희

창작의 내:일, 시도문화재단 창작 공간 통합페스티벌